

## 2015년 창작뮤지컬 우수재공연 지원사업 심사평

- 일시 : 2015. 4. 10(금) 18:00~21:00
- 장소 :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
- 심의위원 : 원종원, 이지나, 정수연, 조형준, 최성신, 최종윤(가나다 순)

2015년 <창작뮤지컬 우수작품 재공연지원>은 재공연을 계획하는 창작뮤지컬을 대상으로 작품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질적 성장과 경쟁력·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48건이 접수되었고 작품의 예술성(40%), 작품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공연단체의 역량(30%)을 기준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7건을 선정하였다.

기존 공연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작품 업그레이드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실현가능성과 발전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고, 대극장 작품 <파리넬리>, 중극장 작품 <곤, 더 버스커>, <바람직한 청소년>, <마당을 나온 암탉>, <로기수>, 소극장 작품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 <난쟁이들>에 지원을 결정하였다.

<파리넬리>와 <곤, 더 버스커>는 작품 규모에 적합한 미장센 보강과 극본 수정, 음악적 보완에 대한 계획 구체적이며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큰 작품이었다. <바람직한 청소년>, <마당을 나온 암탉>은 기존의 원천소스와 차별화를 목표로 뮤지컬만의 특·장점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계획이 명확하였다. <로기수>,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 <난쟁이들>은 신선한 소재와 형식을 잘 풀어낸 작품으로 재공연을 통해 작품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완성도를 높이리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각 작품별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예산과 지원신청액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작품별 차등지원을 결정하였다.

지난 한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창작뮤지컬이 공연되기까지 노력한 모든 공연 단체에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지원에 선정된 단체는 비단 해당 작품의 성장뿐만 아니라 창작뮤지컬 발전에 일조 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에 대한 책임을 다해주길 독려한다.

창작뮤지컬 우수재공연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